

# 순교자들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 ▶ 제대 앞에서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빵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이사 50,5-7)

## ▶ 시작기도

사랑하옵 그리스도 예수님,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과 수난을 겸손한 사랑으로 한올 남기지 않고 다 참아 받으신 저의 예수님, 이제 순교자들과 함께 당신 수난의 길을 걷고자 하오니 저희에게 죄를 통회하는 마음과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용기를 주시어 당신 십자가를 피로써 증거한 순교자들의 믿음을 본받아 살게 하시고 마침내는 당신과 하나되게 하소서.

- +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 ◎ 십자가의 길에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처 예수, 사형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순교자들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님, 주를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십자가에!”(요한 19,6)

- 외치다가 나는 지쳐 버렸고 목고 이미 쉰 지 오래오이다.
- 하나님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눈마저 흐려져 버렸나이다.
- 까닭없이 이 몸을 미워하는 자 머리칼보다도 더 많사옵고
- 애매한 나를 거스르는 자 내 뼈보다 더 억세오니 빼앗지도 않은 것을 내 갚아야 옳으리까  
(시편 69,4-5)

## <독서>

- 순교자 샤스땅과 모방 신부의 편지 중에서

오늘 즉 9월 6일 우리에게 순교하러 나오라는 주교님의 두 번째 명령이 왔습니다. 길을 떠나는 이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기쁨을 덜하게 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3년 동안 성사를 주는 행복을 가졌었고 또 갈라디아인들이 사도 성바오로를 사랑했듯이 우리를 사랑하는 저 열심한 신입교우들을 떠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큰 잔치에 가는 길이니 우리 마음 속에 슬픈 감정이 스며들어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친애하는 신입교우들을 여러분의 열렬한 박애심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달레, 한국천주교회사, 中권, 459쪽)

또는

- 순교자 김 루시아의 편지 중에서

나는 지금까지 천주의 은혜로 형벌과 고통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결국 사형선고를 받았습니  
다. 언제나 천주께서 나를 부르시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천주께 기도하고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우리 뒤를 따르십시오. 우리는 다만 천주의 부르심을 기다릴 뿐입니다.(한국  
순교자 103위 전, 2권, 66쪽)

(잠시 묵상한다.)

사랑하옵 예수님, 아버지께 대한 당신의 고귀한 순명을 봅니다. 거절할 수 있음에도 피할 수 있음  
에도 당신은 모두 받아들이십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십자가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저희가 깨닫게 하소서.

+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2차 예수,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순교자들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님, 주를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요한 19,17)

○ 주님 들으소서, 죄없는 자의 사연을 내 부르짖는 소리를 굽어 들으소서.

● 거짓없는 입시울로 애원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어 들어주소서.

○ 나에 대한 판결을 어전에서 내리소서. 올바름을 당신 눈이 보시나이다.(시편 17,1-2)

### <독서>

- 순교자 이경언 바오로의 편지 중

눈을 뜨니 다리가 온통 헤어지고 사방에서 피가 흐르거나 혹은 상처 위에 피가 엉겨 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아, 나보다 신체가 더 튼튼하지도 못하셨을 예수께서는 올리브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  
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높은 산 꼭대기까지 천걸음이나 더 되는 곳을  
걸어 가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고 그를 도와주는 교우 하나도 없  
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대죄인에게는 이렇게 동정과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고 정신을 들게 하느라  
고 애들을 쓰는군요.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옳단 말입니까.(달레, 한국천주교회사, 中권, 152쪽)

또는

- 순교자 박보록 바오로에 관한 기록 중

다시 진영으로 불러 나가서는 고문을 당하는 중에 첫 번과 같은 항국심을 보여 주었다. 형리들은 그의  
뺨을 치고 수염을 잡아 뽑고 천만가지 욕설을 퍼붓기를 꺼리지 않았다. 그러나 박보록 바오로는 ‘이  
고통은 천주의 은혜이니 천주께 감사한다’고 말할 뿐이었다. 이렇게 몇 번 더 그의 결심을 흔들려 보  
려고 하다가 소용이 없게 되니 영장은 그를 대구 감사에게 보냈다.(달레, 한국천주교회사, 中권, 169

쪽)

(잠시 묵상한다.)

사랑하옵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당신의 모습에서 지극한 사랑과 겸손을 봅니다. 어깨를 힘겹게 내리누르는 십자가는 바로 저희에 대한 당신 사랑의 무게가 아닙니까? 순교자들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의 십자가를 사랑으로 지고 가게 하소서.

+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3차 예수, 첫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순교자들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님, 주를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2고린 12,10)

○ 주여 곤경에 있는 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과 영혼과 육체가 슬픔에 지쳐 있나이다.

● 내 목숨은 슬픔으로 내 세월은 한숨으로 다하였고, 고생으로 이 몸은 맥이 풀렸사오며, 뼈가 다 녹아 버렸나이다.(시편 31,10-11)

### <독서>

- 순교자 원 베드로에 관한 기록 중

관장은 그를 결박하여 물을 퍼부어 추운 밤중에 밖에 내 놓아 얼려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원 베드로는 붉은 밧줄로 묶였고 온 몸에 물을 뒤집어 썼다. 이미 그의 온 몸에 얼음이 뒤덮였다. 이 형벌 가운데에서 그는 오직 주의 수난만을 생각하였다. ‘나를 위하여 온 몸에 매를 맞으시고 내 구원을 위하여 가시관을 쓰신 예수여,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에 얼음에 덮여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 다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목숨을 하느님께 바쳤다. 닭이 두 회째 울 때에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달레, 한국천주교회사, 3권, 369쪽)

또는

- 순교자 김종한 안드레아의 편지 중

이 고을에서는 남녀 노소 포함 100명이 붙잡혔었습니다. 이 중에서 자기네 고향 옥중에서나 혹은 감영으로 가는 도중에 굶주려 죽은 이들도 있고 마음이 약하여 배교한 사람들도 있어 이제는 겨우 13명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천주의 섭리가 명하신 것이며 또 우리들이 감사를 올려야 할 은혜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몹시 약하므로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참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루어형언할 수 없을만큼 더 슬퍼지지만 합니다.

(잠시 묵상한다.)

사랑하옵 예수님, 무참히 넘어지시는 당신의 모습에서 나약함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관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또한 모든 순교자들을 통해서 압니다. 삶의 무게로 넘어질 때 저희를 일으켜 주소서.

+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4처 예수와 성모 서로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순교자들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님, 주를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들러날 것입니다.”(루카 2,35)

○ 아들이 잘 생각하고 헤아려 그것들을 잠시도 잊지 말아라. 그것이 아름다운 목걸이가 되어 복된 삶을 안겨 줄 것이다.

● 불의한 자에게 참변을 당하고 갑작스런 화가 닥치더라도 겁내지 말아라.

○ 야훼께서 네 곁에 계시어 발목이 잡히지 않게 지켜 주신다. (잠언 3,21-22.25-26)

#### <독서>

- 순교자 이 루갈다의 편지 중

어머님,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모든 걱정을 억제하세요. 이 세상을 꿈으로 보시고 영원을 어머니의 본향으로 생각하시고 늘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천주의 명령을 따르신 뒤에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는 천하고 약한 자식인 제가 끝없는 행복의 화관을 머리에 쓰고 모든 천상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아 영원한 고향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달레, 한국천주교회사, 538쪽)

또는

- 순교자 강완속 골롬바에 관한 기록 중

강완속 골롬바의 신앙은 그의 모성애도 마찬가지로 영광스럽게 이겼다. 그와 같이 잡혔으나 다른 옥에 갇혀 있던 그의 전설 아들 흥필주 필립보는 형벌 중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았다. 골롬바는 그 말을 듣고 그가 옥에서 법정으로 가던 어느날 먼 발치로 아들을 보고 그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예수께서 네 머리 위에서 너를 보고 계신다. 네가 그와같이 눈이 어두워 스스로 멸망할 수 있느냐. 내 아들이, 용기를 내고 천당복을 생각하여라.” 이 용감한 격려가 젊은이의 영혼을 구하였으니 그는 이 말로써 힘을 얻어 몇 달 후에 순교의 영광을 바랐다.(달레, 한국천주교회사, 500쪽)

(잠시 묵상한다.)

사랑하옵, 예수님, 십자가의 길에서 서로 만나신 당신과 성모님의 침묵을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요. 그리고 고통 속에서의 침묵은 얼마나 더 큰 사랑인지요. 당신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어 고통 속에서도 침묵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 +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5차 키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를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순교자들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님, 주를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마태 27,32)

- 내 힘이 다하오니 주여 가엾이 보아주소서. 나를 고쳐 주소서. 뼈가 무너나나이다.
- 내 영혼 이다지도 어지럽건만 주여 당신은 언제까지나?
- 주여 돌아오시와 이 영혼 건지소서. 자비로우시오니 이 몸 살려 주소서.(시편 6,3-5)

#### <독서>

- 순교자 이여삼 바오로에 관한 기록 중

그는 아직 예비신자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크게 십자가를 굶고 자기 자신에게 성세를 주노라고 하며 머리에 물을 부었다. 그런 다음 눈이 동그래지 관원을 올려다 보며 말하였다. “저는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태껏 때린 모양으로 때리면 아직도 죽을 길이 아득합니다. 제가 죽기를 원하시면 여기를 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몸 옆구리의 어떤 부위를 손으로 가리켰다. 그가 가리킨 데를 두 번 치니 그는 그만 숨을 거두었다. 그때 그의 나이 43세 가량이었다.(달레, 한국천주교회사, 中권, 41쪽)

또는

- 순교자 조용삼 베드로에 관한 기록 중

심문 중에 조용삼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늘에는 두 임금이 없고 사람은 두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은 다만 천주를 위하여 죽는 것뿐입니다. 제게 더 이상 물어 보시는 것은 무익한 일이며 저는 다른 말씀 드릴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나 잔인하게 매질을 당하였던 하루나 이틀 후 2월 14일 옥중에서 성세를 받은 후 숨을 거두었다. 그때까지 그는 예비신자에 불과하였었다.(달레, 한국천주교회사, 上권, 466쪽)

(잠시 묵상한다.)

사랑하옵 예수님, 저희를 간절히도 원하시는 당신의 부르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요에 의한 부르심이 아니라 무한한 당신 사랑에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또한 압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당신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도록 저의 귀를 열어 주소서.

- +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의 얼굴을 씻어드림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순교자들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님, 주를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 언제까지나 주여 나를 아주 잊으려 하시나이까. 언제까지나 당신 얼굴을 감추려 하시나이까

● 언제까지 나는 영혼의 쓰라림을, 마음의 근심을 나날이 되새겨야 하오리까(시편 13,2-3)

### <독서>

- 순교자 신태보 베드로의 옥중 수기 중

내 다리는 하도 살이 헤어져서 빠가 드러나 보였으며 나는 앉지도 밥을 먹지도 못하였다. 매일 그저 물을 두 세 탕기 먹었을 뿐이었다. 내 상처는 굼아서 견딜 수 없는 악취를 풍기었으며 더구나 방은 벌레와 이 투성이라 아무도 내게 근접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다행히 건강한 몇몇 교우들이 부축을 하여 주어 몸을 좀 움직일 수가 있었고 이들은 또 가끔 내가 있는 골방을 치워 주기도 하였다. 이 애덕의 행위를 어떻게 넉넉히 감사할 수 있겠는가?(달레, 한국천주교회사, 中권, 139쪽)

또는

- 순교자 정정혜 엘리사벳에 관한 기록 중

형조에서 다시 6회의 신문을 받고 6회의 고문을 당한 후 사형선고를 받았다. 옥에 다시 갇히자 기도와 갇힌 이들을 보살피는 것으로 나날을 보냈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도록 밖에 나가서까지 구원을 청하기를 꺼리지 않았다. 이 자선사업에 어떻게나 집념하였던지 형장으로 떠나가면서까지 교우들에게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세요.” 하는 말 밖에는 하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11월 24일 43세를 일기로 참수되어 아버지와 어머니와 두 오라비를 만나러 하늘로 올라갔다.(달레, 한국천주교회사, 中권, 501쪽)

(잠시 묵상한다.)

사랑하올 예수님, 당신의 얼굴을 닦아드린 베로니카의 희생을 봅니다. 남을 위한 특히 어려움속에서의 희생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주체와 객체, 나와 너를 떠나 저희 모두가 당신 안에서 하나임을 알게 하소서.

+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7처 예수,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순교자들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님, 주를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라 말이나?”(마태 26,40)

-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 몸은 괴롭삽나이다. 가까이 하옵소서. 도울 이 없삽나이다.
- 마치도 옆지러진 물과도 같이 내 모든 뼈들은 무너났나이다.
- 밀초같이 되어버린 이 내 마음은 스스로 내 속에서 녹아 버리나이다.
- 기왓장처럼 내 목은 칼칼하고 내 혀는 입천장에 들러붙어 죽음의 재 가운데 이 몸은 누워 있나이다.(시편 22,12.15-16)

### <독서>

- 순교자 이호영 베드로의 편지 중

이윽고 형리들은 매질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는 중 누님은 기운이 펴진하고 무서운 칼 밑에 몸이 움츠러들어서도 항상 순교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천주께 순교할 은혜를 주실 것과 도우심을 구하여 마지 아니합니다. 내가 지금 쓴 것은 많은 사람이 보고 들은 것입니다. 이야기를 더 길게 쓸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에 가득한 생각을 자세히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내 다리는 온통 터져서 한 개의 상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주의 은혜로 아직도 괴로움을 당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교우 여러분께 평화를 축원하며 소식주시기를 바랍니다.(한국순교자 103위전, 2권 13쪽)

또는

-순교자 유대철 베드로에 관한 기록 중

하루는 어떤 포졸이 구리로 된 대통을 그의 허벅지에 들이박아 살점을 한점 떼어내면서 소리쳤다. “이래도 아직 천주교를 믿겠느냐”유베드로는 대답하였다. “믿구말구요. 이렇게 한다고 믿지 못할 줄 아세요” 그러니까 포졸은 벌겋게 된 숯덩어리를 집어가지고 입을 벌리라고 하였다. 유베드로가 “자요” 하고 입을 크게 벌리니 포졸은 놀라 물러나고 말았다. 어떤 때 그는 고문을 비웃고 형리들의 약을 올리는 것 같이 보였다. 몸에 매달려 너털거리는 살점을 마치 자기 몸이 아닌 것처럼 잡아 나꾸어 채니 관원들은 모두 치를 떨었다. 마침내 9월 15일에 최 필립보와 함께 옥에서 교수형을 당하였다. 이 때 그의 나이 겨우 13세였다.(달레, 한국천주교회사, 中권, 482쪽)

(잠시 묵상한다.)

사랑하옵 예수님 당신의 넘어지는 모습에서 광야의 유혹을 봅니다. 그리고 유혹은 외부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에 있다는 것도 또한 압니다. 매 순간의 유혹을 나약함을 당신과 순교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굳건히 이겨낼 수 있게 하소서.

- +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8차 예수,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순교자들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님, 주를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루카 23,28)

-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루카 6,21-23)

### <독서>

- 순교자 김대건 신부의 편지 중

지극히 사랑하는 교형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내려오시어 직접 수없는 괴로움을 당하셨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의 괴로움으로 그가 당신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도 십자가와 고난 가운데에서 자라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갇혀 있는 몇몇 교우는 천주의 은총으로 잘들 있습니다. 그들이 사형을 받게 되면 그 가족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할 말이 많습디다만 그것을 어떻게 편지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 안있어 싸우러 나갑니다. 제발 여러분은 덕을 닦아 하늘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달레, 한국천주교회사, 下권, 112쪽)

또는

- 순교자 김대건 신부에 관한 기록 중

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 하였으니 여러분은 내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내가 외국인들과 교섭을 한 것은 내 종교를 위해서였고 내 천주를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천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시작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죽은 뒤에 행복하기를 원하면 천주교를 믿으십시오. 천주께서는 당신을 무시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시는 까닭입니다.)달레, 한국천주교회사, 下권, 119쪽)

(잠시 묵상한다.)

사랑하올 예수님, 부인들을 위로하시는 모습에서 온유함을 봅니다. 그리고 온유함은 믿음의 소산이며 당신의 선물임을 순교자들을 통하여 또한 깨달습니다. 당신의 온유함을 저희에게도 나눠 주시어 어떠한 역경에서도 당신의 향기를 잃지 않게 하소서.

- +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9처 예수,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순교자들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님, 주를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합니다.”(2코린 12,9)

○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이 이리 많으니까 나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이 많기도 하오이다.

● 솔한 사람들이 나를 들어 말하기를 저의 구원은 주님 안에 없다하나이다.(시편 3,2-3)

### <독서>

#### - 순교자 정국 뵤로다시오에 관한 기록 중

정 뵤로다시오는 자기가 배교한 사실과 배교한 것을 취소하고 죽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니 하인들은 그를 미친놈으로 다루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튿날 그는 다시 갔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3일째인 5월 12일에는 병이 들고 상처가 덧난 탓으로 인하여 걸음을 걸을 수가 없으므로 들것에 들려 형조 근처에가지 가서 대신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대신이 나오자 길 한가운데서 그의 앞에 엎드려 자기의 내력을 말하고 배교한 죄인이므로 자기를 죽게 하여 달라고 청하며 하도 간절히 조르는 바람에 대신은 그를 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달레, 한국천주교회사, 中권, 413쪽)

또는

#### - 순교자 홍낙민 루카에 관한 기록 중

제가 지난 날에 한 모든 것은 목숨을 비겁하게 보전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매질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니 저는 마음 속에 있는 말을 전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용감하게 죽고자 합니다. 제가 섬기는 천주는 하늘과 땅과 천신과 사람과 만물의 주행자이십닐. 그리고 마태오 리치와 다른 선교사들은 우러러볼만한 도리와 성덕을 가진 사람들이며 그들의 말은 모두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천주를 위하여 죽고 그렇게 함으로써 천주교 신앙의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달레, 한국천주교회사, 上권, 450쪽)

(잠시 묵상한다.)

사랑하올 예수님, 힘겹게 넘어지시는 당신의 모습에서 다시 일어서시는 모습을 또한 봅니다. 그리고 한때 배교하였지만 끝내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교자들에게서도 다시 일어서시는 당신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의 강인함을 저희에게도 나눠주시어 죄와 모든 약점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소서.

- +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악당들이 예수의 옷을 벗기고 초와 쓸개를 마시게 하였음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순교자들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님, 주를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그들은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마태 27,34)

- 내 영혼을 가까이하사 속량해 주시고 원수들 보라는 뜻이 나를 구하여 주소서.
- 수치와 수모와 인욕의 나를 아시오니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당신 앞에 다 있나이다.
- 인욕에 바쳐진 마음 나는 기진하여 기다려도 기다려도 동정할 이 없고 위로할 이 하나도 얻지 못하였나이다.
- 사람들은 나에게 쓸개를 먹으라고 주고 목마를 제 나에게 초를 마시웠으니(시편 69,19-22)

### <독서>

#### - 순교자 다블뤼 주교의 기록 중

별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주림이요 그보다도 심한 것은 목마른 것이었다. 다른 형벌을 받으면서는 용맹히 신앙을 증거한 이들도 주림과 목마름에는 넘어가는 이들이 많았었다. 하루에 두 번씩 주먹만한 조밥 한 공기밖에는 얻어먹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들이 누워 자는 더러운 벧짚 자리를 뜯어먹고 심지어는 옥 안에 기어다니는 이를 잡아먹기까지 하였다.(한국 순교자 103위 전, 2권, 8쪽)

또는

#### -순교자 신태보 베드로의 옥중 수기 중

나는 다시 주뢰의 형벌을 당하게 되었다. 바로 엮은 것을 조이는 바람에 나는 벌써 의식이 거의 없어졌는데 하도 세게 눌렀기 때문에 몽둥이가 부러졌다. 이 소리를 듣고 나는 다리가 부러진 줄 알고 질 겁을 하여 내려다 보았다. 나는 말이 들리기는 하여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술을 갖다 내 입에 대 주었으나 그것을 받아 삼키지를 못하였다. 얼마동안 누웠다가 다시 술을 가져오니 그 때에야 조금씩 마실 수가 있었다.(달레, 한국천주교회사, 中권, 130쪽)

(잠시 묵상한다.)

사랑하올 예수님, 당신의 모습에서 너무도 간절한 목마름을 봅니다. 바로 사랑과 저희 자신에 대한 목마름을, 그리고 저희의 허물과 아집이 당신의 목마름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것도 또한 압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일깨워 주시어 당신의 목마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소서.

- +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1차 예수,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순교자들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님, 주를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루카 23,43)

○ 술한 개들이 나를 둘러 싸고, 악한 무리 이 몸을 에워싸나이다. 그들은 내 손과 발을 사뭇 뚫었나이다.

● 내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어도, 그들은 익히 보며 좋아라 나를 보며

○ 저희끼리 내 겉옷을 나누 가지고, 내 속옷을 놓고서 제비뽑나이다.(시편 22,17-20)

### <독서>

- 순교자 최해성 요한에 관한 기록 중

관장은 화가 치밀어 매질을 한층 더 심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다리뼈가 부서져 두 세치나 되는 뼈 조각 두 개가 땅에 떨어졌다. 그의 등과 배가 빠끔히 구멍이 나서 창자가 밖으로 빠져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받는 중에도 요한의 얼굴은 여전히 안온하였으니 그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구세주만을 생각하고 사랑은 사랑으로 목숨은 목숨으로 갚고자하는 것이었다.(달레, 한국천주교회사, 中권, 476쪽)

또는

- 순교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에 관한 기록 중

형리들이 그의 말을 중단시키고 나무토막에 머리를 대라고 하니 그는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머리를 누이면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죽는 것보다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였다. 망나니는 벌벌 떨며 감히 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마치내 감탄보다는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므로 자신없는 손으로 첫 번 칼질을 하였다. 목은 절반밖에 끊어지지 않았고 아오스딩은 일어나 보라는 듯이 크게 십자성호를 긋고 조용히 다시 첫 번 자세로 돌아가 치명적인 일격을 받았다.(달레, 한국천주교회사, 上권, 452쪽)

(잠시 묵상한다.)

사랑하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에게서 커다란 관용을 봅니다. 목숨을 빼앗아 가는 자들을 위한 당신의 기도, 지극한 사랑의 표현임을 또한 압니다. 취사선택하는 저희의 사랑을 십자가에 못박아 주시어 당신의 넓으신 사랑을 따라 살게 하소서.

+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2차 예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순교자들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님, 주를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지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마르 15,34)

○ 하느님 내 하느님 어찌나 버리시나이까, 울부짖고 빌건만 멀리 계시나이다.

● 진중일 외쳐 봐도 들은 체 얹으시고, 밤새껏 불러 봐도 알은 체 아니하나이다.(시편 22,2-3)

<독서>

- 순교자 권상연 야고보와 윤지충 바오로에 관한 기록 중

관리는 나라의 관습대로 명패에 쓴 왕이 승인한 결안을 윤 바오로에게 읽으라고 하였다. 윤 바오로는 곧 그것을 받아 큰 소리로 읽었다. 그런 다음 그는 머리를 커다란 나무 토막 위에 누이고 여러번 예수 마리아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는 지극히 침착한 태도로 망나니에게 치라는 신호를 하였다. 망나니는 그의 머리를 단번에 잘랐다. 다음은 권 야고보의 차례였는데 그 역시 예수 마리아의 이름 부르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의 머리도 이내 잘렸다.(달레, 한국천주교회사, 상권, 354쪽)

또는

- 순교자 김대건 신부에 관한 기록 중

그런 다음 그의 무릎을 꿇리고 머리채를 새끼로 매어 말뚝 대신 꽃아 놓은 창자루의 뚫린 구멍에 꿰어 반대쪽에서 그 끝을 잡아당겨 머리를 쳐들게 하였다. 이런 준비를 하는 동안 순교자는 냉정을 조금도 잃지 않았다. 그는 망나니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되었소? 마음대로 칠 수가 있겠소?” “아니오, 몸을 조금 돌리시오. 이제 됐소.” “자, 치시오. 나는 준비가 되었소.” 칼을 든 군사 12명이 싸움하는 흥내를 내면서 김대건 안드레아의 주위를 빙빙 돌며 제각기 순교자의 목을 쳤다. 머리가 여덟 번 째 칼을 맞고야 떨어졌다.(달레, 한국천주교회사, 下권, 120쪽)

(잠시 묵상한다.)

사랑하옵 예수님, 그저 당신의 거룩한 죽음을 바라봅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제가 무엇이기에 죽어야만 새 생명이 시작된다는 십자가의 진리를 피로써 증거한 순교자들을 본받아 매일의 유혹과 죄에 용감히 죽을 수 있게 하소서.

+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차 제자들이 예수의 성시를 십자가에서 내리움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순교자들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님, 주를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카 23,46)**

○ 주께서 너를 구하셨으니 고요로 돌아가라 내 영혼아.

● 죽을 세라 이 목숨 건지셨도다. 울세라 이 눈들 지키셨도다. 넘어질세라 이 발을 지키셨도다.

○ 나는 거닐리라 주님 앞에서, 생명의 지역에서 거닐리라.(시편 116,7-9)

<독서>

- 순교자 장 베드로와 손 막달레나 부부에 관한 기록 중

관장은 일찍이 들어본 일이 없을 정도의 잔악성을 극도로 발휘하여 그들이 보는 앞에서 두 자녀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또 실제로 아이들을 혹독히 고문시키기 시작하였다.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하였다. 그러나 전능한 은총이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장 베드로는 부르짖었다. “자녀를 사랑함은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며 우리 아이들의 괴로움은 내 자신의 괴로움보다 백 배나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천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안됩니다. 천만번 못하겠습니다.(달레, 한국천주교회사, 中권, 503쪽)

또는

- 순교자 권 데레사에 관한 기록 중

몇 해 전까지 사랑 있었던 어느 여교우가 권 데레사가 처형된 뒤에 그 시체를 보았는데 칼을 세 번 맞은 자리가 있었고 몸이 대단히 아름다워 보였다 한다. 이 순교자들의 시체는 한달이 지난 뒤에가 거둘 수 있었는데 뼈 밖에는 남아 있지 않았었다. 권 데레사의 머리채는 대바구니에 아무렇게나 넣어 1839년에 순교한 남 세바스티아노 집에 보관하였었는데 그 바구니를 열면 향기가 진동하여 온 방안을 가득 채웠다고 여러 증인이 말하였다.(달레, 한국천주교회사, 中권, 96쪽)

(잠시 묵상한다.)

사랑하옵 예수님, 당신의 성시를 안고 계시는 성모님에게서 고귀한 나눔을 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항상 당신과 함께 하셨던 성모님, 이제 마지막 남은 고통까지도 참아 받으시기 위해 당신을 안고 계십니다. 성모님의 나눔을 깊이 본받게 하시어 모든 고통을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받게 하소서.

+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순교자들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님, 주를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 파아란 풀밭에 이 몸 눕여 주시고, 고이 쉬라 물터로 나를 끌어 주시니

○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 돌아라. 주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곧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어라.

●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시편 23,1-4)

**<독서>**

- 순교자 앵베르 주교의 편지 중

5월 27일 월요일 새벽에 약간 힘이 들기는 하였으나 시체를 훔쳐낼 수가 있었습니다. 순전히 이들을 장사지내기 위해 장만하여둔 작은 터에다 함께 묻었습니다. 나는 행복된 유럽에서와 같이 그들에게 비단 옷을 입히고 귀한 향료를 바르기가 얼마나 소원이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가난도 하거니와 그렇게 한다면 현신적으로 이 거룩한 사업을 맡아 하는 교우가 너무나 큰 위험을 무릅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남녀 별로 각각 옷을 입히고 시체를 자리에 싸서 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보호자를 천국에 보냈고 내가 보는 바와 같이 어느 때고 조선에 천주교가 왕성하여지면 이 시체들이야말로 국가적인 유물이 될 것입니다.(한국 순교자 103위전, 2권, 44쪽)

(잠시 묵상한다.)

사랑하옵 예수님, 당신의 무덤에서 당신의 깊은 평화를 봅니다. 고통을 극복한 후의 평화, 그것은 또한 저희 모두의 희망임을 압니다. 저희에게도 당신의 평화를 심어 주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당신의 평화를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제대 앞에서

사랑하옵 예수님, 주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과 수난으로 당신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저의 예수님, 십자가의 삶을 사셨던 성모님과 순교자들의 공로를 보시어 악을 멀리할 수 있는 힘과 당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에게 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십자가를 피로써 증거한 순교자들의 후예답게 온몸으로 십자가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성 안드레아 김대건과 바오로 정하상과 동료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순교자들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학생용)

### ▶ 시작기도

사랑하옵 그리스도 예수님,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과 수난을 겸손한 사랑으로 한올 남기지 않고 다 참아 받으신 저의 예수님, 이제 순교자들과 함께 당신 수난의 길을 걷고자 하오니 저희에게 죄를 통회하는 마음과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용기를 주시어 당신 십자가를 피로써 증거한 순교자들의 믿음을 본답아 살게 하시고 마침내는 당신과 하나되게 하소서.

- +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 ◎ 십자가의 길에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차 예수, 사형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순교자들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님, 주를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외치다가 나는 지쳐 버렸고 목고 이미 쉰 지 오래오이다.
- 하느님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눈마저 흐려져 버렸나이다.
- 까닭없이 이 몸을 미워하는 자 머리칼보다도 더 많사옵고
- 애매한 나를 거스르는 자 내 뼈보다 더 억세오니 빼앗지도 않은 것을 내 값아야 옳으리까(시편 69,4-5)
- +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2차 예수,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 들으소서, 죄없는 자의 사연을 내 부르짖는 소리를 굽어 들으소서.
- 거짓없는 입시울로 애원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어 들어주소서.
- 나에 대한 판결을 어전에서 내리소서. 올바름을 당신 눈이 보시나이다.(시편 17,1-2)

### 제3차 예수, 첫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여 곤경에 있는 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과 영혼과 육체가 슬픔에 지쳐 있나이다.
- 내 목숨은 슬픔으로 내 세월은 한숨으로 다하였고, 고생으로 이 몸은 맥이 풀렸사오며, 뼈가 다 녹아 버렸나이다.(시편 31,10-11)

### 제4차 예수와 성모 서로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 아들이 잘 생각하고 헤아려 그것들을 잠시도 잊지 말아라. 그것이 아름다운 목걸이가 되어 복된 삶을 안겨 줄 것이다.
- 불의한 자에게 참변을 당하고 갑작스런 화가 닥치더라도 겁내지 말아라.
- 야훼께서 네 곁에 계시어 발목이 잡히지 않게 지켜 주신다. (잠언 3,21-22.25-26)

### 제5차 키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를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내 힘이 다하오니 주여 가없이 보아주소서. 나를 고쳐 주소서. 뼈가 무너나나이다.
- 내 영혼 이다지도 어지럽건만 주여 당신은 언제까지나?
- 주여 돌아오시와 이 영혼 건지소서. 자비로우시오니 이 몸 살려 주소서.(시편 6,3-5)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의 얼굴을 씻어드림을 묵상합니다.**

- 언제까지나 주여 나를 아주 잊으려 하시나이까. 언제까지나 당신 얼굴을 감추려 하시나이까
- 언제까지 나는 영혼의 쓰라림을, 마음의 근심을 나날이 되새겨야 하오리까(시편 13,2-3)

**제7처 예수,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 몸은 괴롭삼나이다. 가까이 하옵소서. 도울 이 없삼나이다.
- 마치고 옆지러진 물과도 같이 내 모든 뼈들은 무너났나이다.
- 밀초같이 되어비린 이 내 마음은 스스로 내 속에서 녹아 버리나이다.
- 기왓장처럼 내 목은 칼칼하고 내 혀는 입천장에 들러붙어 죽음의 재 가운데 이 몸은 누워 있나이다.(시편 22,12.15-16)

**제8처 예수,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루카 6,21-23)

**제9처 예수,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이 이리 많으오니까 나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이 많기도 하오이다.
- 슬한 사람들이 나를 들어 말하기를 저의 구원은 주님 안에 없다하나이다.(시편 3,2-3)

**제10처 악당들이 예수의 옷을 벗기고 초와 쓸개를 마시게 하였음을 묵상합니다.**

- 내 영혼을 가까이하사 속량해 주시고 원수를 보라는 듯이 나를 구하여 주소서.
- 수치와 수모와 인욕의 나를 아시오니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당신 앞에 다 있나이다.
- 인욕에 바쳐진 마음 나는 기진하여 기다려도 기다려도 동정할 이 없고 위로할 이 하나도 얻지 못하였나이다.
- 사람들은 나에게 쓸개를 먹으라고 주고 목마를 제 나에게 초를 마시웠으니(시편 69,19-22)

**제11처 예수,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니다.**

- 슬한 개들이 나를 돌려 싸고, 악한 무리 이 몸을 에워싸나이다. 그들은 내 손과 발을 사뭇 뚫었나이다.
- 내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어도, 그들은 악히 보며 좋아라 나를 보며
- 저희끼리 내 겹옷을 나누 가지고, 내 속옷을 놓고서 제비뽑나이다.(시편 22,17-20)

**제12처 예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묵상합니다.**

- 하느님 내 하느님 어찌나 버리시나이까, 울부짖고 빌건만 멀리 계시나이다.
- 진종일 외쳐 봐도 들은 체 않으시고, 밤새껏 불러 봐도 알은 체 아니하나이다.(시편 22,2-3)

**제13처 제자들이 예수의 성시를 십자가에서 내리움을 묵상합니다.**

- 주께서 너를 구하셨으니 고요로 돌아가라 내 영혼아.
- 죽을 세라 이 목숨 건지셨도다. 울세라 이 눈들 지키셨도다. 넘어질세라 이 발을 지키셨도다.
- 나는 거닐리라 주님 앞에서, 생명의 지역에서 거닐리라.(시편 116,7-9)

**제14처 예수,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 파아란 풀밭에 이 몸 누여 주시고, 고이 쉬라 물터로 나를 끌어 주시니
-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 돌아라. 주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곧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어라.
-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시편 23,1-4)



▶ 제대 앞에서

사랑하옵 예수님, 주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과 수난으로 당신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저의 예수님, 십자가의 삶을 사셨던 성모님과 순교자들의 공로를 보시어 악을 멀리할 수 있는 힘과 당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에게 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십자가를 피로써 증거한 순교자들의 후예답게 온몸으로 십자가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성 안드레아 김대건과 바오로 정하상과 동료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